

보도 일시	2022. 3. 4.(금) 15:30	배포 일시	2022. 3. 4.(금) 09:00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신용식 (044-203-2381)
		담당자	사무관 홍희경 (044-203-2384)

## 범정부 한류 협업 해외까지 넓혀 문화강국 만든다

- 3. 4. 제4차 한류협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공동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 '2022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 등 논의 -

정부는 2022년에도 한류 열풍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3월 4일(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주재로 '제4차 한류협력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범부처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과 '2022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논의했다.

2020년 2월, 정부는 부처별 한류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다. 2020년 7월에는 한류 지원 종합계획인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한류 확산을 뒷받침해 왔다.

\* 한류협력위원회: 문체부 장관 주재 13개 관계부처, 12개 공공기관 참여

### 국의 한류 확산 창구와 방한 관광 수요 대비 국내 유입 창구 조성

이번 제4차 회의는 그동안 한류 진흥정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안건인 '범부처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은 2021년 11월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중 '한류 확산 창구(아웃바운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확장한 종합계획이다. '문화로 한류, 한류로 문화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3대 전략 7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견고해진 범정부 협업체계를 해외까지 넓혀 현지에서의 한류 확산 창구를 구조화했다.

먼저 유관 기관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는 재외한국문화원 주도로 ‘(가칭)케이(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시 협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한류 유관 기관 간 현지 연계망을 강화하고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시적 협력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미국·일본 등에 설치된 재외한국문화원은 정례회의를 운영해 종합문화행사 등의 유관 기관 참여를 제안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해 동반 상승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현지에 진출한 유관 기관이 적은 지역에서는 협업과제부터 선정하고, 재외한국문화원이 과제별 특성에 맞는 유관 기관을 매개해 협업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케이(K)-브랜드 해외홍보관’ 조성 사업은 한국문화홍보와 연관 산업 수출진흥이라는 목적에 맞게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등의 협력 기관을 발굴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류 수요에 대응해 재외 한국문화원과 콘텐츠산업(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 해외의 협업거점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한류 확산 요인과 추세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식소통도 강화한다.

범정부 협업을 위한 국외 확산 창구를 구축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방한 관광 수요에 대비해 국내 유입 창구(인바운드 플랫폼)도 조성한다. 2022년 상반기에는 한류 관광 홍보관 ‘하이커’, 2022년 하반기에는 대표 걷기 관광지인 ‘코리아둘레길’, 2024년에는 ‘콘텐츠 테마파크’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문화유산 등 한국 고유의 문화자원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방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류의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육성, 한류 경제적 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문화자원과 최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가 등장하는 등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실감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자원의 데이터화, 저작권 보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6개\* 부처는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힘을 모아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한류마케팅을 지원하고, 한류의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는 종합 박람회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와 연관 산업의 홍보 중심지가 될 ‘케이(K)-브랜드 해외홍보관’은 2022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관한다. 한류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활용해 농·수산 식품, 미용(뷰티), 브랜드케이(K) 등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영향력도 확장해 나간다.

\*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한류 관심 순수예술과 전통문화까지 확대, 현지 한국어 학습 지원 강화**

대중문화에 집중된 관심을 순수예술·전통문화 등으로 넓혀 한국문화가 자생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케이(K)-뮤지컬 국제마켓’을 올해 6월에 개최하고, 현대미술 작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한복, 판소리, 전통연희 등 한국문화의 원형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체험·전시·공연 콘텐츠로 만든다.

더욱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원 파견·양성·연수, 교재 개발·보급 등 세종학당, 현지 초·중등학교, 대학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한국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류를 활용한 학습 콘텐츠도 개발한다.

### **수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지식재산 보호 등 한류 콘텐츠 지원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적 흥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류(K)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류 콘텐츠 현지 동향과 수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번역 등 콘텐츠 현지화와 화상 수출 상담을 지원해 비대면 수출 기반을 만들며, 올해 처음으로 현지 전문성과 콘텐츠 산업 이해력을 갖춘 수출 전문인력 200여 명을 양성한다. 이와 함께 게임, 영화 등 콘텐츠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해외 박람회 참가와 플랫폼 입점 등도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도 보호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계약서 법률상담, 현지 불법 유통 감시, 지식재산 침해 감정·조사, 소송지원 등 해외 진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 국내 콘텐츠 기업과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업당 이용권 상한액을 기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 제공할 계획이다.

### **양방향, 권역별 맞춤형 국제문화교류 확대로 동반성장 지원**

아울러 일방향적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 국내외 제작사가 협업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홍보대사인 ‘케이(K)-인플루언서’와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등을 선정해 한류 팬들이 한국문화를 직접 알리는 기회도 제공한다.

권역별 한류 확산 현황을 고려해 맞춤형 문화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미주·유럽에서는 수교 계기 행사를 적극 활용한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경우에는 신진 대중문화예술인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문화적 동반성장을 촉진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신한류 문화다리’ 사업에서는 올해 신남방 1개국과 신북방 1개 국가의 문화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한국문화축제’를 대중문화,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대표 한류 행사로 육성**

아울러 이번 제4차 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다룬 ‘2022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국문화축제(’22. 9. 23.~10. 1.)’를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종합 한류 행사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서울 드라마 어워즈’, 신설되는 ‘(가칭)케이(K)-그랑데 어워즈’와 각각 연계해 한류 대표 콘텐츠를 만나보는 시상식 형태로 꾸미고, 본행사는 산업홍보관, 한류 팬 참여 행사, 대형 한류 행진(퍼레이드) 등 산업계와 한류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한다. 특히 올해부터

유관 부처와 기관이 연관 산업 홍보관에 참여하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대통령께서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가 되었고, 문화예술의 매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류협력위원회’를 통해 국내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전 세계에 지속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한류 아웃바운드 확산 계획’ 및 ‘한국문화축제 개최 계획’ 요약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책임자	과장	신용식 (044-203-2381)
		담당자	사무관	홍희경 (044-203-2384)
<공동>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책임자	과장	문경호 (044-215-4610)
		담당자	사무관	권은영 (044-215-4615)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책임자	과장	원용연 (044-203-6799)
		담당자	사무관	김영권 (044-203-6798)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책임자	과장	심규선 (02-2100-7727)
		담당자	행정관	최명주 (02-2100-8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책임자	과장	이주식 (044-202-6350)
		담당자	사무관	김성환 (044-202-6359)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대일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팽기득 (044-203-4035)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책임자	과장	문지인 (044-201-2151)
		담당자	사무관	이현 (044-201-2155)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책임자	팀장	임아람 (044-202-2974)
		담당자	사무관	변수원 (044-202-2965)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성희 (044-200-5480)
		담당자	사무관	한지용 (044-200-5483)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장	강기성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김창민 (044-204-7505)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영호 (042-481-4740)
		담당자	사무관	이광구 (042-481-4745)